

붙임 2. C사의 투찰률 격차 — 응찰 26건 전건

C사가 응찰한 26건에 대해, 그 공고의 **낙찰자 투찰률**과 **C사 투찰률**, 그리고 두 값의 **격차**를 실었습니다. 투찰률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이며, **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낙찰**되므로 투찰률이 낮을수록 싸게 부른 것입니다. 격차가 작을수록 C사가 낙찰자에 근접한 금액을 써냈다는 뜻입니다. '최고가' 칸의 ○는 그 공고에서 C사가 **응찰자 중 가장 비싼 금액**을 써냈다는 표시입니다. 번호는 붙임 1의 번호와 같습니다.

#	개찰일	참여	낙찰자	낙찰자 투찰률	C사 투찰률	격차	C사 개찰순위	최고가
1	2019-06-21	3곳	B사	88.254%	88.757%	0.503%p	2위	—
2	2019-11-12	2곳	A사	88.989%	90.254%	1.265%p	2위	○
3	2020-02-28	3곳	A사	89.296%	89.686%	0.390%p	2위	—
4	2020-06-09	3곳	A사	91.277%	94.382%	3.105%p	3위	○
5	2020-10-20	3곳	B사	89.998%	90.165%	0.167%p	2위	—
6	2021-02-05	5곳	외부①	88.485%	92.947%	4.462%p	5위	○
9	2022-01-25	5곳	외부②	88.282%	89.607%	1.325%p	4위	○
10	2022-07-05	4곳	A사	85.737%	90.263%	4.526%p	3위	—
11	2022-09-07	3곳	A사	88.775%	88.943%	0.168%p	2위	—
12	2023-02-07	4곳	A사	88.057%	88.965%	0.908%p	4위	○
13	2023-03-14	3곳	A사	89.779%	90.560%	0.781%p	3위	○
15	2023-08-16	3곳	A사	87.374%	89.264%	1.890%p	3위	○
16	2023-09-14	3곳	B사	91.436%	93.084%	1.648%p	3위	○
17	2024-02-20	3곳	B사	88.751%	90.086%	1.335%p	3위	○
18	2024-03-27	3곳	B사	88.504%	89.626%	1.122%p	3위	○
19	2024-05-29	3곳	A사	88.648%	89.456%	0.808%p	3위	○
20	2025-03-11	3곳	A사	90.644%	93.554%	2.910%p	3위	○
21	2025-03-25	3곳	D사	87.230%	87.925%	0.695%p	3위	○
22	2025-04-01	3곳	A사	89.460%	90.292%	0.832%p	3위	○
23	2025-04-03	3곳	A사	88.739%	88.773%	0.034%p	2위	—
26	2026-02-03	2곳	B사	91.668%	91.764%	0.096%p	2위	○
27	2026-02-20	3곳	B사	87.782%	89.262%	1.480%p	3위	○
28	2026-03-04	4곳	A사	87.090%	87.895%	0.805%p	4위	○
29	2026-03-13	3곳	B사	91.248%	92.899%	1.651%p	3위	○
30	2026-04-01	3곳	A사	90.019%	90.478%	0.459%p	3위	○
31	2026-05-29	3곳	B사	91.936%	92.468%	0.532%p	2위	—

요약 — 26건 전건에서 C사의 투찰률은 낙찰자보다 **높습니다**(격차 전건 양수). 중위 격차 **0.870%p**, 최소 **0.034%p**, 최대 **4.526%p**. 격차가 **1%p 이내인 건이 14건(53.8%)**, 0.5%p 이내가 6건입니다. 동시에 **19건(73.1%)**에서 **응찰자 중 가장 비싼 금액**을 써냈고, **개찰 1순위**는 0건입니다.

이 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C사는 **한 번도 개찰 1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**. 둘째, 그러면서도 **낙찰자와 근소한 차이의 금액**을 반복해 써냈습니다. 낙찰을 목표로 한 투찰이라면 26번 중 몇 번은 1순위가 나와야 하고, 낙찰에 관심이 없는 투찰이라면 격차가 이렇게 좁게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.

출처: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결과 투찰률. 격차 = C사 투찰률 - 낙찰자 투찰률.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